

메이저의 아시아시장 진출현황

이 자료는 일본석유산업활성화센터의 '97 아시아각국석유정책등조사보고서에서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메이저(Shell, Exxon, BP, Mobil, Texaco, Total, Arco 등)의 아시아지역활동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또, 아시아시장에서는 Shell, Exxon 2개사가 상당히 큰 세어를 차지하고 있고, BP, Mobil, Texaco가 다음을 잇고 있다. 구미시장에서는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면서 아시아에서 수익증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아시아 시장의 전략으로는 Main Stream에서의 수익확보와 안정화를 도모해 사업기반을 강화하면서 신규유망지역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 즉, 끈질긴 교섭으로 사업환경조건을 정비하고 수익을 증시하면서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다양한 국가가 있다. 메이저들은 단독형태보다는 오히려 국제전소사업등을 구성해 리스크분산을 도모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각사 현황이다.

1. Shell

Shell은 전세계를 몇 개 'Zone'으로 나눠 사업을 전

개하고 있다. South Zone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Europe Zone은 유럽, East Zone은 스웨즈以東을 각각 커버하고 있다.

거기에 상기 각조직에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essional Service 조직이 있다. 하류부문 제품에 대해 보면 상기의 3개 Zone과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Research & Technical Service와 Strategy & Business Service가 있고 또, Trading이나 Group용 선박등을 준비하는 Shell International Trading & Shipping Company가 있다.

East Zone은 다음의 5개 그룹으로 나뉜다. 중동·남아시아·중양아시아그룹의 Middle East & South Asia, 메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 그룹의 South East Asia Forum,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태평양의 여러 섬을 커버하는 오세아니아, 중국·홍콩·대만·한국·사할린을 커버하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지금까지 본사와 각 Operating Company가 각각 개별적인 線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Zone 단위를 기초로 面의 형태로 연결하고 있다. 각 Zone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Action Plan을 구체화한 후 그 진척상황을 모니터해 종료되면 Review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다. 5개 그룹의 대표는 분기별로 모여 각각 목표달성의 진척상황을 Review하고 있다. 실제로 동남 아시아에서는 주유소 펌프 공동구입이나 공동광고시설등으로 효과를 올리고 있다.

• **말레이시아** - Shell에는 Petronas와의 PS(Pioneer Status) 계약에 의한 2개 생산회사가 있다. Sarawak Shell Berhad는 Sarawak 앞바다의 석유·천연가스전을 운영하고, Saba Shell Oil Company는 Saba 앞바다 유전의 Operator가 있다. 천연가스생산은 말레이시아 전체 생산량중에서 최대세어를 차지하고 Bintulu의 LNG 플랜트에 공급하고 있다. 원유생산량이 감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그 장래를 맡기고 있다. 가스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LNG프로젝트 3건에 모두 참가하고 있다. Shell은 Bintulu에 있는 중간유분합 성장치 소유자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류부문에서 Shell은 말레이시아에 정유공장 2개를 소유하고 있고 그 공장들의 총원유처리능력은 15만b/d이다. 1999년에는 RCC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최근 Petronas와의 공동투자로 포트 디슨정유공장의 제품을 쿠알라룸푸르까지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완공시켰다. Shell의 Market Share는 대략 29%로 말레이시아 최대의 석유제품 소매 판매회사이고 세어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편의점 운영을 강화해 이 분야에서 이익을 늘릴 계획이다.

2. BP

BP의 아시아사업은 현시점에서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유공장과 싱가포르의 SRC정유공장의 30%의 지분을 제외하면 同社의 자산은 소량의 석유 및 가스생산과 북서 LNG프로젝트의 20% 정도 되는 지분뿐이다. 하류부문에서는 현재 그 사업의 약 70%를 구미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에서도 의욕적으

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同社는 중국에 1개 LPG Bottling Brand와 복수의 소규모사업의 파트너이다. 그러나, 미개발광구가 많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나 구공산권에서의 탐광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현재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호주등에서 생산·탐광개발을 하고 있다.

BP는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아시아에 많은 화학제품 사업을 갖고 있다. 생산능력은 40만톤에 달하는데 현재 여기에 2개 플랜트 추가건설을 검토중이다.

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계열주유소를 전개하고 있다. 1995년 연료유판매실적은 태국에서 22%, 말레이시아半島지역에서 약 15%의 세어를 갖고 있는데, 양사 모두 앞으로도 세어확대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또, 베트남에서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멕스와 합작으로 시작한 유회유 판매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되어 세어는 70%에 달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SRC 증설이 1995년에 완료되었고, 1997년말까지 태국의 유회유공장 블렌딩능력도 연산 2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2개, 호주에 2개, 뉴질랜드에 1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지분 기준 총정제능력은 약 30만b/d에 달한다.

한편, 알래스카원유의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등 아시아각국에 대해 ANS원유의 수출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Balongan정유공장의 제품거래협정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제품은 Pertamina의 국내공급용으로 再販하고 있다. 同社는 인도네시아내 하류부문 투자를 더욱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다.

• **말레이시아** - BP는 214개 소매점포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의 거의 8%를 판매하고 있다. 정제시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전산망이 갖춰진 수입기지를 소유하고 있고, 북부 여러 주에 배급하기 위한 소형 물류기지를 Perak의 Laharat에서 운용하고 있다.

同社は 또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용한 隙間상법을 전개하는 등 경쟁이 적은 지역에 주유소군을 확립하는 경향이 있다.

3. Exxon

Exxon은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를 중점시장으로 하고 있다. 상류부문의 프로젝트에는 나트나, 사할린, 타림이 있고 특히 가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류부문에서는 싱가포르의 대형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석유화학이나 윤활유를 중시하고 있다. 국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 정도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윤활유의 조합·마켓팅에 주력하고 있다.

하류부문 전략으로는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판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활유나 Specialty를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성숙시장·저성장시장에서는 정제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 **말레이시아** - Exxon(Exso)은 말레이시아 최대원유 생산자이다. 최근 그 최대유전, Siligi의 확장공사를 완공해 생산량을 17만b/d로 올렸다. 1993년에도 그 최대가스전, Jerneh의 가동을 시작해 그때부터 전국의 가스공급망에 공급하고 있다. 또, Exso는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가스공급자이나 말레이시아의 LNG프로젝트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다.

석유제품에서는 최근 포트 디슨정유공장에 투자해 원유처리능력을 현재의 75,000b/d까지 증설했다. 또, 주유소 500개 이상을 소유한 말레이시아에서 3번째의 석유제품 판매회사이다. 이 회사는 그 소매판매시설의 개선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기존 편의점 'Esso Shop(Kedai Esso)' 계열점의 보강으로 'Tiger Mart' 구상을 발표했다. 1996년 중반 시점에서 Exso는 56개의 Tiger Mart

를 소유하고 있고 신규 주유소의 90%는 Tiger Mart를 병설한다고 한다. 게다가, 신규점포에는 말레이시아의 Fried Chicken Chain 'Ayamas'와 '텔리프랑스'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Exso는 윤활유도 판매하고 있다.

4. Mobil

Mobil의 전세계 석유제품매출의 25%, 정유공장능력의 33%는 Asia Pacific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룬가스전의 발견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Mobil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또, 91년 호주의 정제·판매부문을 매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Operation은 더욱 강화되었다. 과거 5년간 Mobil은 세계전체에서 210억\$ 이상의 투자를 실시했는데, 싱가포르의 정유공장의 시설투자나 石化플랜트에 6억\$를 투자하는 등 강력한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Mobil Asia Pacific은 '96년 설립된 11개 Business Group의 하나로 아시아 지역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고 5개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5개부문은 일본, 호주의 하류, 호주의 상류, 뉴질랜드의 하류, 싱가포르와 기타 아시아이다.

투자면에서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장기적으로는 인도·미얀마·필리핀에 집중시키고 있다. 또, 세계 12개국에서 20개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Asia Pacific지역은 7개 있고 그 정제능력은 전체의 31%로 740천b/d이다. 아시아의 비중은 85년 27.7%, 90년의 29.4%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유공장 확장계획은 없다.

주유소는 전세계에서 18,860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 5,730개가 이 지역에 있다.

• **말레이시아** - Mobil은 말레이시아에는 정제사업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소매네트워크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하류부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신설 소매점포는 모두 편의점을 병설하고 있다. 소매점포에서 패스트푸드 영업을 하는 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다. Mobil은 Port Klang에 LPG수입터미널 겸 충전기지를 BP와 공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시장은 석유제품에서 13%, 윤활유에서 30% 증가했는데 Mobil은 휘발유에서 9%, 윤활유에서 12%의 세어를 갖고 있다.

• **인도네시아** - Mobil은 주로 북수마트라에서 조업해 하루 생산량 1,540MMSCF의 가스를 Arun의 LNG플랜트에 보내고 있다. 이 가스전에서는 별도로 80,000b/d의 컨덴세이트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同社は 파트너인 Exxon 및 Pertamina와 공동으로 Natuna 프로젝트에 26%의 지분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정제사업에 대한 투자는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 프로젝트에서 장차의 가동개시후 자사 브랜드에 의한 윤활유제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Mobil은 하류부문 진출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자는 석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또, 생산한 가스가 소형발전소에 제공될 예정이다. 東자바앞바다의 Madura 블록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 출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Jurong정유공장은 Mobil이 100% 보유한 정유공장으로 미국외에 최대규모이다. CDU능력은 '95년에 10% 이상 증강되어 277,000b/d이다. 또, PX Unit가 '94년에 완공되어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 석유제품시장은 20%의 마켓 세어를 갖고있다.

5. Texaco, Caltex

Caltex Petroleum은 Chevron과 Texaco의 합작회사인데 미국을 포함한 동남구의 6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판매·무역·정제·저장·기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14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同社は 메이저 2개사의 아시아의 하류부문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상류부문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스웨즈이동 포함)에서는 최대판매업자이다.

메이저석유회사 2개사의 민간합작회사로서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Caltex는 다른 회사와 같이 사업에 관한 Data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Caltex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태국의 정제시설을 크게 확대하려 하고 있다. PTT와의 합작사업인 태국의 Star정유공장은 1996년말에 완공되어 정제능력이 약 130천b/d 증대되었다. Caltex는 판매에도 크게 투자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20, 필리핀에 200개 주유소를 건설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Caltex는 2개 내륙유전, Duri와 Minas에서 거의 76만 b/d를 생산하고 두 곳에서 대규모 EOR(증진회수법)프로젝트에 현재도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Duri에서는 총비용 미화 10억\$의 수증기공법이 진행중이다. 또, Amoseas의 Operator이고 국영 전력회사에 증기를 공급하는 지열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고, 2번째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해 교섭중이다.

Caltex가 그 원유의 수출을 제품수출로 전환할 목적으로 민간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MIGAS와 교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본격적 프로젝트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또, Pertamina와의 합작에 따른 윤활유공장을 北수마트라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 Caltex는 300개 주유소의 판매재원을 싱가포르 정유공장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있는 등, 말레이시아의 석유제품 판매회사로서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同社は 1995년에 Techron이라는 무연휘발유 발매에 성공해 마켓세어를 늘렸다. 현

메이저의 아시아지역 진출현황

[Exxon]

정유공장	싱가포르 : 100%출자 정유공장(Esso Singapore Pty. Ltd : 227천b/d) 태국 : 88%출자 정유공장(Esso Standard Thailand Ltd : 167천b/d) 말레이시아 : 100%출자 정유공장(Esso Malaysia Bhd : 80천b/d)
국내석유판매	싱가포르 : 국내판매세어-20%, 주유소-37개 태국 : 국내판매세어-19%, 주유소-811개 말레이시아 : 국내판매세어-16.9%, 주유소-427개

[Royal Dutch Shell]

정유공장	싱가포르 : 100%출자 정유공장(Shell Eastern Petroleum Ltd : 405천b/d) 필리핀 : 100%출자 정유공장(Pilipinas Shell Petroleum Corp : 104천b/d) 태국 : 15%출자 정유공장(Thai Oil Co. Ltd : 207천b/d), 64%출자 정유공장(Rayong Refinery : 145천b/d) 말레이시아 : 100%출자 2개 정유공장(Shell Refining Co. Bhd : 105천b/d, Sarawak Shell Bhd : 45천b/d) 브루나이 : 50%출자 정유공장(Brunei Shell Petroleum Co : 9천b/d)
국내석유판매	싱가포르 : 국내판매세어-37%, 주유소-86개 태국 : 국내판매세어-19%, 주유소-991개 말레이시아 : 국내판매세어-27.9%, 주유소-720개 필리핀 : 국내판매세어-29.9%, 주유소-797개 인도 : 주유소-12개

[Mobil]

정유공장	싱가포르 : 100%출자 정유공장(Mobil Oil Singapore Pty. Ltd : 255천b/d)
국내석유판매	싱가포르 : 국내판매세어-21%, 주유소-44개 태국 : 국내판매세어-0.6%, 주유소-66개 말레이시아 : 국내판매세어-9.9%, 주유소-172개

[BP]

정유공장	싱가포르 : 30%출자 정유공장(Singapore Petroleum Co. Ltd : 270천b/d) 인도네시아 : 수출형정유공장(EXOR-1)에 관여(125천b/d)
국내석유판매	싱가포르 : 국내판매세어-12%, 주유소-38개 태국 : 주유소-38개 → Caltex에 판매네트워크 매각하기로 '97년 11월에 발표 말레이시아 : 국내판매세어-9.5%, 주유소-178개

[Caltex]

정유공장	한국 : LG-Caltex정유에 50%출자(634천b/d) 싱가포르 : 30%출자 정유공장(Singapore Petroleum Co. Ltd : 270천b/d) 태국 : 5%출자 정유공장(Thai Oil Co. Ltd : 207천b/d), 64%출자 정유공장(Star Petroleum Refining : 124천b/d) 필리핀 : 100%출자 정유공장(Caltex Philippines Inc : 72천b/d)
국내석유판매	한국 : LG-Caltex정유의 국내판매세어-30%, 주유소-2,072개 싱가포르 : 국내판매세어-9%, 주유소-31개 태국 : 국내판매세어-8%, 주유소-589개 말레이시아 : 국내판매세어-15.4%, 주유소-280개 필리핀 : 국내판매세어-26.5%, 주유소-1,069개

(자료) : 일본석유연맹, 미쓰비시總合연구소, PEC(일본석유산업활성화센터) 보고서 등

재 Caltex의 판매망에는 편의점은 조금밖에 없지만 同社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소매점망 투자는 주유소의 개조에 중점을 두고 그 중 몇 군데에 'Star Mart'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판매조직의 지원책으로서 Caltex는 1996년, Selangor의 인다島 (Pulau Indah)에 제품수입기지를 건설했다. 이 시설은 100% Caltex 소유이다.

6. ARCO

• 인도네시아 - ARCO의 최대 투자는 북서자바 앞바다에서 10만b/d를 생산하는 Ardjuna 유전과 자바앞바다의 Pagerungas 가스전이다. 후자에서 생산되는 하루 생산량 600MMSCF(백만입방피트)의 가스는 총연장 400Km의 파이프라인을 경유해 동자바의 Gresik에 보내지고 있다. 가스의 용도는 1,500MW의 발전소와 비료공장이다. ARCO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정부분의 가스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同社는 동시에 가스발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에도 성공해 현재는 이리안자아에서의 최근의 가스발전을 신규 LNG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ARCO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정제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없다. 同社는 아시아 정제사업에서 별다른 업적이 없고 현재 상류부문에만 머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7. Cococo

• 인도네시아 - Cococo는 1994년 8월 조업을 시작한 Belida 유전의 Operator이다. 현재의 생산량은 약 115,000b/d인데 추정매장량은 2억Bbl이다. Caltex와 마찬가지로 Cococo도 인도네시아시장에 참여한다고는 하나, 이미 발표한 민간정유공장계획중 어느 것도 표면화된 것은 없다. 아마 하류부문의 규제완화가 더욱 진행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 말레이시아 - 1998년초 PST-II의 가동개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석유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同社에는 여전히 그 정유공장 생산에 맞는 국내시장의 판매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Cococo는 제품처리처 확보를 위한 시장세어 구축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8. TOTAL

TOTAL의 사용자분을 지역별로 보면 29%가 프랑스, 33%가 나머지 유럽인데, 합하면 유럽전체에서는 60%를 조금 넘는다. 한편에서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95년에는 11%이지만 2000년에는 배인 22%까지 투자액을 늘려갈 생각으로 아시아중시 자세를 엿볼수 있다.

조업개발사업면에서는 석유·가스생산량은 현재 석유 환산 약 75만b/d인데 2000년에는 이것을 100만b/d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시아시장 전개의 특징은 상류부문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사업에 주력해 인니,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제분야에서는 중국의 大連 정유공장에 20%출자하고 있다. 이것은 TOTAL의 아시아지역 최초의 정유공장이다. 大連 정유공장은 '9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제품은 주로 중국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의 정유공장 신설계획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철회하게 되었다.

판매분야에서는 소규모이긴 하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등에서 주유소사업, LPG판매사업에 착수하는 등 장래의 시장개방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